

통권 제 167호

2561
2017

09

불교 이야기
불교 공부의 시작은
사성제로부터



마중물
작은 허물도
참회하라



계율 이야기
도독질한
여자인 줄 알면서
게를 주지 말라

워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워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중

지혜 知慧

작은 것을 숭상하면
사상이 작은 인물이 되고
또 작은 인물을 낳게 되며,
큰 것을 숭상하면
사상이 커져서 큰 인물이 되고
또 큰 인물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작은 유상보다 큰 무상을,
유한한 현실보다 무한한 진리를,
약한 인간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을 믿고
크게 살아야 할 것이니라.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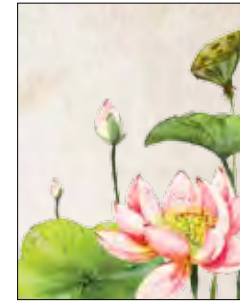
십선성취 _ 24

행복
_ 보현



법향기속으로 _ 44

번뇌 있는 부처가
중생이요, 번뇌 없는
중생이 부처다 _ 법수연



지혜의 뜨락 _ 58

연꽃의 전설
_ 덕현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2 계율이야기

18 살다보면

22 향유

24 십선성취

28 마음의 등불

32 씨앗 한알

36 울림

40 발길 머무는 그곳에

44 법향기 속으로

48 디딤돌

50 차향기 속으로

53 산책

54 거꾸로 보기

58 지혜의 뜨락

62 시선

66 SNS 세상 돌아보기

68 결망에 담긴 이야기

70 행복한 기지개

74 뜻 바꾸기

76 되짚어보기

78 만다라세상 컬러링

불교 공부의 시작은 사성제로부터 _ 화령

작은 허물도 참회하라 _ 해충

도둑질 한 여자인줄 알면서 계를 주지 말라 _ 법경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기 _ 이육경

아침공기 _ 김종열

행복 _ 보현

늬움에 대하여 _ 조위한

눈부신 오늘이 피어납니다 _ 법상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 _ 김지안

모든 종교는 숭고하다(1) - 이슬람 수피 성지 방문기 _ 김단비

번뇌 있는 부처가 중생이요, 번뇌 없는 중생이 부처다 _ 법수연

화양연화花樣年華 _ 지현

커피품종 _ 이선희

준비 _ 김대곤

왕비는 왜 자꾸 거울을 보았을까 _ 박현희

연꽃의 전설 _ 덕현

당신의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_ 경문지

우아한 여배우 _ 이선희

지극한 도道 _ 법일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 _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음福音 _ 김재동

계륵雞肋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그래, 그러려니 하고 살자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 다 좋게만 들리라
내 말도 더러는 남의 귀에 거슬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세상이 어찌 내 마음을 꼭 맞추어 주랴
마땅찮은 일 있어도
세상은 다 그런거려니 하고 살자

사노라면 다정했던 사람
멀어져갈 수도 있지 않으랴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더불어 사는 것이 좋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사람을 피하신 적도 있으셨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 하지말자
부족한데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인생은 결국 가는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킁킁한 겨울 날씨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더러는 좋은 생사 보여 줄때가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 헤민 스님 좋은글

불교 공부의 시작은 사성제로부터

화령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불교공부를 하는 사람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에 대하여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사성제를 모르고서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목적지도 없이 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잡아함경》 가운데의 <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태어남도 고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고이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이고[원증회고 怨憎會苦],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이며[애별리고 愛別離苦],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고[구부득고 求不得苦]이다. 요컨대 취착[取着]하는 이 몸 자체가 고이다[오취온고 五取蘊苦].

이것이 고(苦)에 관한 신성한 진리[고성제]이다.

또 비구들이여, 윤회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고 쾌락과 탐욕을 수반하며 모든 것에 집착하는 갈애[渴愛]는 고가 일어나는 원인에 관한 신성한 진리[고집성제]이다.

또 비구들이여, 갈애를 남김없이 떠나고 멸하여 무집착인 것은 고의 멸에 관한 신성한 진리[고멸성제]이다.

또 비구들이여,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이라고 하는 이 여덟 가지의 신성한 도[팔지성도 八支聖道]야말로 고의 멸에 이르게 하는 도에 관한 신성한 진리[고멸도성제]이다.

부처님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의 하나하나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 실천방도로서의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증일아함경》에서는 사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전에 같이 수행하던 다섯 비구를 상대로 처음 설법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섯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사제^{四諦}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제란 괴로움의 범위에 의한 진리인 고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인 집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인 멸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실천해야 할 진리인 도제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성제라는 것은 괴로움이 무엇이며 그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는 어떤 것이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사성제에 대해 설명하신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비구들이여, 이 사제에 대한 진리는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진리로서 이를 들으면 통찰력이 생기고 사리를 꿰뚫는 지혜가 생기며 무명을 깨뜨리는 지혜, 깨달음, 광명, 진리를 꿰뚫는 지혜가 생긴다. 또 그것은 흔들림 없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으며 틀림없는 이치로, 부처가 설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가지의 진리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서는 이 사성제라는 진리의 여러 가지 공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흔들림이 없고 진실하며 틀림없는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은 불교의 실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성불하신 것은 연기법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십이연기를 관찰함에 의하여 세계와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해탈에 이르셨던 것입니다. 십이연기를 통하여 스스로 마음에서 증득을 얻었다고 하여 이를 ‘자내증^{自內證}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제팔정도의 교법은 석존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이치를 남들에게 쉽게 드러내기 위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팔정도를 ‘화타^{化他}의 법문’이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는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자내증의 내용인 십이연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 화타의 법문인 사성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전에서는 자내증과 화타의 법문에 대하여 이러한 얘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연기의 도리를 깨달아 성불하신 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스스로의 깨달음을 검증하며 법락을 즐기고 계셨다고 합니다. 연기의 도리는 너무나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을 테니 이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라는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어 생사에서 벗어난 지금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입멸에 드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 범천^{梵天}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 그래도 이 세상 누군가는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므로 설법을 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범천의 권청^{勸請}’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설법할 대상을 찾아 천안^{天眼}으로 둘러보니 출가 초기의 스승이었던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같이 수행하던 다섯 비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좌선에서 일어나 이들이 머무르고 있던 녹야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처음으로 이들에게 설법한 것이 사성제였습니다.

이 때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다하여 이를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어려운 연기의 도리를 사성제로써 알기 쉽게 간추려 다섯 비구들에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을 타락한 사문이라고 여기며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던 다섯 비구들에게 중도를 설하여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릴 것을 말씀하신 다음, 사성제의 구조로써 자신이 깨달으신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석존께서 다섯 비구들을 상대로 설법하실 때에 처음으로 설하신 것이 비고비락(非苦非樂)의 중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팔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를 사성제로써 종합하여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성제는 불교 최초의 가르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성제는 불교의 교리구조를 단적으로 집약하여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최승설법(最勝說法)'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를 바로 알고 사성제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라도 불법을 닦는 불자라면 이 사성제에 의거하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

탐심을 버리라.
다툼을 좋아하지 마라.
애욕에 탐닉하지 마라.
잘 묵상하고 방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라.

- 범구경 -



작은 허물도 참회하라

혜충

제5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부산 감로사 주지

참회는 생활 속에서 쓰는 작은 마음 씀씀이를 돌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집에서나 절에서나 평소에 이기적인 마음을 남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돌리는 그 마음가짐이 쌓아온 업장을 녹이고 허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어느 절에 함께 다니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일찍 재혼을 한 죄책감 때문에 늘 죄지은 사람처럼 얼굴에 그림자가 젖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별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항상 웃고 당당했습니다.

“지금 마당에 나가서서 이쪽 보살님은 큰 돌 하나를, 저쪽 보살님은 작은 돌 여러 개를 주워 오십시오.”

그녀들이 돌을 주워오자 큰스님은 두 여인에게 번거롭겠지만 돌들을 원래 자리에 갖다놓으라고 일렀습니다. 이상했지만 무슨 곡절이 있나 해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두 여인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 돌을 들고 왔던 여인은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여러 개의 작은 돌을 주워 왔던 여인은 원래 자리를 다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여인을 물끄러미 보던 큰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큰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 제자리로 갖다 놓기가 쉽지만, 작은 돌들은 제자리를 알기 어려워 도로 갖다 놓기가 어렵습니다.

큰 돌을 들고 오신 보살님은 한때 저지른 큰 잘못을 마음에 새겨 늘 참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만하면 되었으니 이제 지난 잘못에 대한 짐을 내려 놓으십시오. 하지만 작은 돌을 주워 오신 보살님은 살아오면서 지은 작고 가벼운 죄들을 모두 잊은 채 뉘우침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허물에 대해 참회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평소 작은 허물은 잘 기억하지 못해 참회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허물이 많이 쌓이면 큰 과보를 부르게 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작은 업들이 큰 업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참회를 통한 업장 소멸은 매일,时时刻刻으로 해야 합니다.

‘참’이 자기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라면, ‘회’는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불교에서 참회 없는 수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회가 근본 무명인 업식(業識)을 녹이는 마음공부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업장소멸 없는 깨달음의 추구는 모래밭에 집을 짓는 꼴입니다. 그래서 역대 조사 선지식께서 참회를 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평소에 작은 허물들을 소멸하는 참회를 거듭해 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다 보면 좋은 일도 샘물처럼 솟고, 가피도 입고, 구경에는 죄도, 참회도, 참회할 것도 없는 환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

도둑질 한 여자인줄 알면서 계를 주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법천사 주교

청정한계율_28

비구니의 승잔죄 제2조 지도적녀계(知盜賊女戒)의 인연담

물건을 훔친 여자인줄 알면서 계를 주지 말라는 것이 비구니의 두 번째 승잔죄다. 이를 지도적녀계(知盜賊女戒)라 한다. 즉 도적녀(盜賊女)인줄 알면서 계를 주면, 계를 준 비구니가 승잔죄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그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베살리성 미후강변 누각강당에 계실 때 어떤 부녀들이 소풍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타서 낯선 여인이 그 부녀들의 재물을 훔쳐 달아 났다.

이에 그 부녀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물건을 훔쳐간 여인을 잡아 죽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도둑질 한 여인은 피신하여 왕사성에 있는 비구니의 절에 몸을 숨기고는 출가자가 되겠다고 애원하였다.

그 여인이 도둑질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비구니들은 그녀를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여인을 추적해오던 병사들은 출가한 그녀를 보고도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이 소문이 점차 널리 퍼지자 모든 부녀들이 이구동성으로 ‘죽을 죄를 지은 여인을 마음대로 출가시켰다.’고 하면서 승단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부처님은 그 비구니를 불러 “너의 소행



은 위의를 아니며, 사문의 법이 아니며, 청정한 행이 아니며, 수순하는 행도 아니다.”고 하면서 크게 꾸짖고는 정법이 오래 가도록 하고 승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율을 제정하였다.

만약 어떤 비구니가 그전에 죽을 죄를 지은 도둑인줄 알면서, 또 일반이 널리 다 아는 사실을 왕과 대신에게 조회하지도 아니하고, 또 종성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문득 출가를 허락하여 계를 주었다면, 그 비구니는 승잔죄가 되느니라.

출가수행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네 가지의 큰 죄에 해당한다. 이를 사중죄(四重罪), 사중금(四重禁), 사바라이(四波羅夷)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은 여인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알면서도 출가를 시켰다면, 그 비구니는 승잔죄를 지은 것이 되어 별주(別住)라는 벌칙을 받게 된다.

별주는 승가에서 따로 떨어지는 것으로, 이를 마타나라고 한다. 마타는 근신(謹愼)을 의미한다. 6일간, 즉 1주 가량을 근신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 발로참회(發露懺悔)하면 나중에 멸죄(滅罪)가 된다. 죄가 소멸한다는 말이다. 이를 출죄(出罪)라고 한다.

그런데 출죄(出罪)는 1주간 동안 근신을 하며 참회를 해야 가능해지는데, 이때 20인 이상의 비구가 모인 자리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20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가혹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근신기간 동안에 죄를 범한 비구니는 비구니로서의 많은 자격을 정지 당한다. 법랍이 무시되고 최하위로 떨어지며, 제자를 데리고 있으면 제자를 내놓아야 하고, 제자와 그 외의 비구니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할 수 없으며, 다른 비구니의 존경과 예배, 공양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정사에 머물지 못하고 주변의 방에 기거해야 하며, 매일 한 번씩 대중 앞에서 자기가 범한 죄를 말해야 하고, 스스로 근신하고 속죄(贖罪) 중에 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이다.

승잔죄를 범하고 나서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속죄를 구할 경우에는 1주일 간의 별주와 함께 근신을 하지만, 이를 숨기고 있었다면 숨긴 날짜 수만큼 별주를 더 부과한다. 근신 중간에 다시 승잔죄를 범하면, 처음부터 다시 1주간 별주와 근신을 시작해야 한다. 어쩌면 승가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인연담과 몇 가지 문제

위의 인연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살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를 범한 자가 승가에 출가하는 문제이다. 당시 인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출가하려는 자가 많았다. 그 이유는 출가하여 승가에 들어가면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왕도 비구나 비구니가 된 자에게 그 전력을 불문하고 포박하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죄를 지은 자들이 출가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승가에서는 도둑질을 한 여인을 알면서 계를 주지 말하는 계를 제정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왕과 대신에게 조회도 하지 아니하고’라는 대목이다. 요즘 말로 하면,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하자가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계를 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병이 있는지, 신체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신분 확인, 병력 확인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종성(種姓)을 보지 아니하고’라는 대목이다. 출신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누구인지를 묻고, 스승이 누구인지 등등을

묻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입사 시험의 면접이나 국회의 인사청문회 정도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렇듯, 부처님 당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승가에 들어 왔으므로, 옥석을 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출자자를 엄격하게 선별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심사를 일러서 차난(遮難)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10차13난이라 한다. 이를 줄여서 차법(遮法)이라고도 한다.

승가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법이란 뜻으로, 출가 희망자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 호에서 遮難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한 발 물리서서 바라보기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결혼한 지 여러 해를 훌쩍 넘긴 아들 내외가 드디어 임신을 준비 중 이란다. 무장해제를 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겠다는 말에 귀가 번쩍 띈다.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임신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이리도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가장 염려했던 건 동갑으로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아들 내외의 나이이다. 아들로 봐서야 그리 늦은 것도 아니지만 새 생명을 뱃속에 품고 키워낼 며느리의 나이로 봐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임신

과 출산의 힘든 여정을 겪어내야 할 며느리의 건강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낳으라는 말이 달리 나왔겠는가. 나이만큼 위험 증상도 많아진다는 얘기다. 산모도 산모려니와 태어날 아기에게도 노산^{老産}은 여러모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또 다른 염려는 혹시나 불임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환경오염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불임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피임? …불임? 하면서 의구심 반 걱정 반 아들 내외의 면면을 관찰해 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젠가 딱 한 번 며느리에게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고 물었다가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단체 카톡방에 아들딸들의 임신과 출산 소식을 줄줄이 올라오던 때였다.

그날도 단체 카톡방에 어떤 친구 딸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생전 입에 올리지도 않던 아이 얘기를 하게 된 건 부러움 때문이었다고 하는 게 옳다. 거기에 하나 더, 바로 며칠 전에 며느리가 손녀를 낳았지만, 독신을 고집하다가 동생보다 늦게 결혼을 한 딸 때문에 드러내놓고 기뻐하지도 못했다며 딸의 임신 소식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는 친구의 글에 가슴이 찡해서였다.

그런데…,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느냐며, 아이 키우기에 그리 비좁지 않은 전셋집이라도 장만한 다음에, 아이 뒷바라지에 인색하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다음에나 아이를 생각해 보겠다는 며느리의 말이 어찌나 단호한지 나도 모르게 그만 시어머니의 ‘시’자 근성을 발휘할 뻔했다.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는 존재가 시어머니다. 시어머니 좋다 해도 땅에 묻힐 때가 더 좋다, 어머니 없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행복하다는 서양 속담도 있다. 시금치를 싫어하는 정도는 옛말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아예 시도 읽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며느리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지엄하고도 막강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졌던 게 ‘시’자 붙은 사람들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다. 그런 내가 한 마디 했기로서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박또박 저 할 말을 다 하다니. 이쯤 되면 힘자랑을 해도 된다. 누가 당장 아이를 낳으라고 했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언제쯤 아이를 낳을 거냐고 물어 보지도 못하느냐, 감히 어디서 말대꾸냐면서 목청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며.

그렇지 않아도 눈물 많은 우리 며느리, 눈물 쏙 빼게 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만 이게 웬일? 잔뜩 굳어진 며느리의 얼굴이 왜 그리도 안쓰러운지. 내 아들 만나 저런 마음이 되었으려니..., 갑자기 미안한 마음까지 드는 거였다.

그냥 물어본 거야. 친구 딸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네 나이도 있고 해서 그냥.... 아이구, 난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안 할 말로..., 내 새끼 아니다. 너희들 새끼지!

지금도 생생하다. 변명 같은 내 말에 어머니가 왜요~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던 며느리의 눈에서 툭 떨어져 내리던 눈물. 화인처럼 가슴에 짝히던 그 애잔함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나의 무용담(武勇談) 아닌 무용담(無勇談)을 들은 친구들은 시어머니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웃었지만, 인생은 길다. 사람 사이에는 열 발짝이든 스무 발짝이든 얼마든지 넘어서도 되는 일도 있지만, 반 발짝이라도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일도 있는 법. 관심과 간섭, 조언과 월권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솔직하게 말해 준 며느리가 고마운 만큼, 판단과 선택은 당사자인 아들 내외에게 맡기기로 했다.

부부의 도리를 이르는 상경여빈(相敬如賓)이라는 말이 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 대하듯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이 앞에 고부(姑婦)나 장서(丈壻)라는 말을 붙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의 관계를 이르는 뜻도 된다.

이 말은 ‘가족을 부처님처럼 보고, 가족을 부처님처럼 대하라’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믿고 위하고 따르는데 감정의 골이 깊어질 리가 없다.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고? 어찌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데!

언제쯤이나 반가운 손주 소식이 들려오려는지, 그 보들보들하고 말캉한 녀석의 엉덩이를 토닥일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날을 기다리며 별로 고단수가 못되는 이 시어머니는 고맙다, 미안하다, 고생했다, 사랑한다를 되뇌며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도를 닦는 중이다. 🙏

사진 : 김종열(기자)

글 : 쇼펜하우어



아침공기



우리의 인생도
 피곤한 저녁 시간이 아니라
 선명한 아침 시간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공기 중에 녹아 있는 신선함과
 생명의 뽀뽀함을 호흡하라.

그것은 저녁의 어스름한 공기 속에 떠 있는
 피곤함이나 몽롱함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침 공기는 불쾌하거나 우울하던 그 전날의 기분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소리를 들려준다. ▲

- 쇼펜하우어의 《희망에 대하여》



‘오늘도 행복 하세요’라는 인사를 내 비쳤더니 상대는 도리어 “행복? 뭐 그게 가만있어도 오냐?”는 식으로 답을 해 옵니다. 상대가 그저 오늘 하루 평안하길, 안락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한 인사가 상대를 조바심 나게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못내 미안하면서, ‘행복’이란 말에 저리도 반색을 해야 하나 싶어 살짝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쉬이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떠올리는 것들이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돈벼락을, 어떤 이는 승진을, 어떤 이는 건강을.... 사람들마다 생각해둔 행복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 다름이 행복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면 떠오르던 그 따뜻하고 순수했던 감정들은 발전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 와선 너무나 많은 꼬리들을 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은 지난 2006년부터 세계의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 결과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인의 환산점수는 평균점인 71점보다 12점이나 낮은 59점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내놓은 연구결과를 보면 풍요한 물질과 지적인 능력, 사회적 명성이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배우자 사이의 믿음과 사랑, 가족 간의 유대감, 장래에 대한 희망과 우정 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행복도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사고가 그 바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경제적으로 나아졌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에 있어선 예전엔 한 개만 있어도 행복했다면 지금은 열 개 아니 스무 개가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조건충족’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내고 끊임없이 달려가고만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가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행복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행복은 정말 찰나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 이름은 머물러야 할 시간이 아니고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과정일 뿐이니깐요.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행복추구는 팽팽히 당겨지는 줄다리기이고 아픈 채찍질의 연속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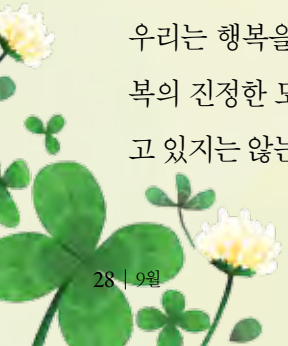
갤럽에서 내 놓은 행복을 평가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많이 웃었는가, 피로는 풀었는가, 온종일 존중 받았는가, 하루를 즐겁게 보냈는가, 흥미로운 것을 했는가와 같이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보리밥 한 그릇 나누던 친척과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되새기며 그래도 그 때가 좋았다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어르신들의 얘기들을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무들과 뛰어놀던 그 골목이 행복의 장이었습니다. 손 내밀어 주는 친구가 행복이었고 그 손을 잡아준 친구 덕에 행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안아주시던 어머니 품, 아침의 여유로운 커피 한 잔, 편안한 잠자리, 장난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등 생활속에서 사소한 기쁨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행복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꼬리 달지 않은 행복의 진정한 모습을 잊고 무언가 만족해야만 인정하는 행복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 옆에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도 공부를 잘 해서도 아닙니다. 욕심을 지우고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이라 해도 작은 일에 만족할 줄 알고 남을 위할 줄 아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과 남을 위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행복해지기는 정말 쉽습니다.

네 잎 클러버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 잎 클러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행운을 차지하기 위해 행복을 우리 스스로가 짓밟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알아차려 봅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

행복가득



늙음에 대하여

조위한(趙緯韓)

1567~1649

조선 중기의 문신



장난삼아 짓다[戲成]

-『현곡집(玄谷集)』 6권

世情大抵嫌衰老	세정대저혐쇠로
老我猶欣作老身	노아유흔작로신
金鼓在聽何用樂	금고재청하용악
煙花着眼不須春	연화착안불수춘
華顛已秃拋梳好	화전이독포소호
午睡常稀得句新	오수상희득구신
臥看兒孫供戲謔	와간아손공희학
全勝托契少年人	전승탁계소년인

사람들은 대체로 늙는 걸 싫어한다지만

늙은 나는 오히려 늙은 내가 좋다네

징소리며 북소리가 귀에 들리니 음악이 무슨 필요며

아지랑이며 꽃이 눈에 보이니 봄을 기다릴 것 없으랴

흰머리나마 이미 다 빠졌으니 빗은 없어도 되고

낮잠이 여간해선 들지 않으니 참신한 시구도 얻지

누워서 손주 녀석 재롱떠는 모습 보고 있노라니

어찌 봐도 내가 아는 젊음이 신세보다야 낫고말고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 물론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생^生에서 시작해서 사^死로 끝나는 생명체의 유기적 변화 양상에서 늙고 병드는 과정은 분명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은 인류 보편적인 사실이면서도 인간 개체라면 어떤 과정에 있든 현재 진행형의 개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생로병사를 표현하는 언어는 일반적으로 엄숙하다는 속성이 있지만, 보편적인 사실인지 개별적인 현상인지에 따라 그 온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특히 시에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사실상 가장 앞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늙음은 곧 병듦,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 시의 저자 조위한은 이십 대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임진왜란을 겪었으며 칠십 대에 병자호란을 겪었다. 이 시의 창작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노년에 지었을 것으로만 짐작된다. 친족의 죽음과 전쟁의 참상을 겪어 자칫 피폐할 것이라 짐작하기 쉬운 저자의 내면 풍경은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

이 시의 저자는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신체가 제 기능을 거의 다 해서 보청기와 돋보기, 그리고 가발이 필요할 것 같은 서글프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담한 어조를 넘어 희화화시켜 표현했다. 또한 저자는 늙은 자신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늙는 것을 싫어

하고 늙은이를 괘시하는 사람들에게 늙은 자신의 장점을 들며 이만하면 젊은이보다 낫지 않느냐며 항변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가치에 측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유쾌한 듯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늙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늙음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독자는 곧 깨닫게 된다. 장난삼아 지었다고 하면서 시종 유쾌한 어조를 유지하던 이 시는 결국 독자에게 엄숙한 여운을 남긴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정동화 선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눈부신 오늘이 피어납니다

범상

목탁소리 카페 지도법사
원광사 주지



삶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내가 그토록 이루려고 원해 온 그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루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요.

존재의 완전성과 풍요로움은 단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낱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지 않은가요?

햇살은 반짝이며 빛나고 밤 하늘의 별빛은 총총하게 떠 있습니다.

아침 나절 두 뺨 위로 간질거리는 햇살이며, 저녁 산책 시간에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마치 영혼까지 일깨워 주는 듯합니다.

나무와 꽃과 산자락 풍경에 시선이 머물 때면 마치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윽한 종소리가 울려오는 듯도 합니다.

새들은 지저귀고 풀벌레는 노래합니다.

부드러운 숨은 들어오고 나가며 생명을 연주합니다.

매일 밤 건강한 두 발로 산책의 숲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이 산하의 대자연은 매일 매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계를 어김없이 선물 해 줍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별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숨 들이쉬지 못하면 죽고 마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들숨으로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대로 놀라움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신비라는 표현을 써도 좋다면, 이토록 신비로운 삶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손으로 물건을 집어들 수 있는 것도 신비이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몇 종류의 새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 귓가 언저리까지 찾아와 연주를 해 주고 있네요.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나 사귀어 두었던 들고양이 야옹이는 하루에 몇 번씩이고 제 방 창문 앞에 서서 정겹게 ‘야옹 야옹’ 거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득 ‘야옹’ 소리를 들을 때의 그 반가움은 어떻게 표현 할 방법이 없네요. 이 모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저절로 살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적 같지 않은가요? 바람이 불어올 때면 저는 마치 부처님의 법신을 친견한 듯 감동 받게 됩니다.

이 평범한 일상 이것을 놔두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감당이 안 될 만큼 주어진 삶의 풍요로움을 두고 또 다른 무엇을 더 벌려고 애쓰고 있나요?

지금 이대로가 정말 부족한 걸까요?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어져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것들인지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물음표를 붙여 보세요.

앞을 볼 수 없는 이들에게 두 눈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이 매 순간 펼쳐지고 있지만, 그 기적을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이 정도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너무 거만한 발상인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판단이나 비교 분별도 필요 없이,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은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상세계와도 같은 눈부신 하루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토록 완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주어진 것들을 진하게 느끼고, 감사해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부신 오늘입니다. ♫





저녁을 먹고 엄마는 아들과 함께 세면대에 나란히 서서 양치를 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 팔이 흉하고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절단했기 때문이다.

“엄마 팔이 너무 보기 싫다...” 자기도 모르게 말하자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는 로켓편지를 날렸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야.” 아들이 그랬다.

엄마는 마음이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그만 웃음이 터졌다고 썼다. 열 살짜리 아들이다. 인테리어 카페에서 읽은 예쁜 이야기. 나도 웃음이 터지며, 그 광경을 떠올리니 눈물도 함께 난다. 감정 이입이 왜 이리 잘 되는 것일까. 그런 아들이 있는데 힘을 내어야겠다고 글쓰는 마음을 다잡고, 읽은 이들도 입을 모아 위로했다.

어린 아들은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긍정적인가. 그의 영혼은 성숙하고 따스한 시선을 지녔다. 우리 엄마들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친다.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베를린의 공원에서 인형을 잃고 우는 소녀를 만났다. 그는 소녀에게 인형이 먼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다. 내일 이 자리에 다시 오면 인형이 보낸 편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을 인형의 편지배달부라고 소개했다. 한동안 카프카는 인형의 편지를 썼고, 30번째 마지막 편지는 인형의 결혼으로 끝난다.

태양이 주황빛으로 먼 산의 실루엣을 물들이고 옅은 어스름이 내릴 무렵이면, 즐겨 듣는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프닝 멘트로 소개된 이야기다. 아름답고 따스하다.

사랑과 위로. 그것이 핵심이다.

글을 쓰든 음악을 연주하든 그림을 그리든 한 덩어리의 빵을 만들어 팔든 거리를 청소하든 구두를 닦든,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형의 편지를 받은 소녀는 발랄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 같다. 모험을 떠난 인형이 보낸 편지, 읽어보고 싶네.

호숫가에서 도로로 나가려고 깜빡이를 넣고 서 있는데, 할머니가 폐지를 잔뜩 실은 수레를 끌고 오는 것이다. 폐지를 줍는 어른들을 보면 그의 가족사라든가 건강이 궁금해진다. 그리고 보니 호서대 들어가기 전 입장 쪽 큰 도로는 내내 비스듬한 오르막의 연속이다. 그 오르막을 향해 폐지를 산처럼 쌓은 수레를 끌며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 지은 얼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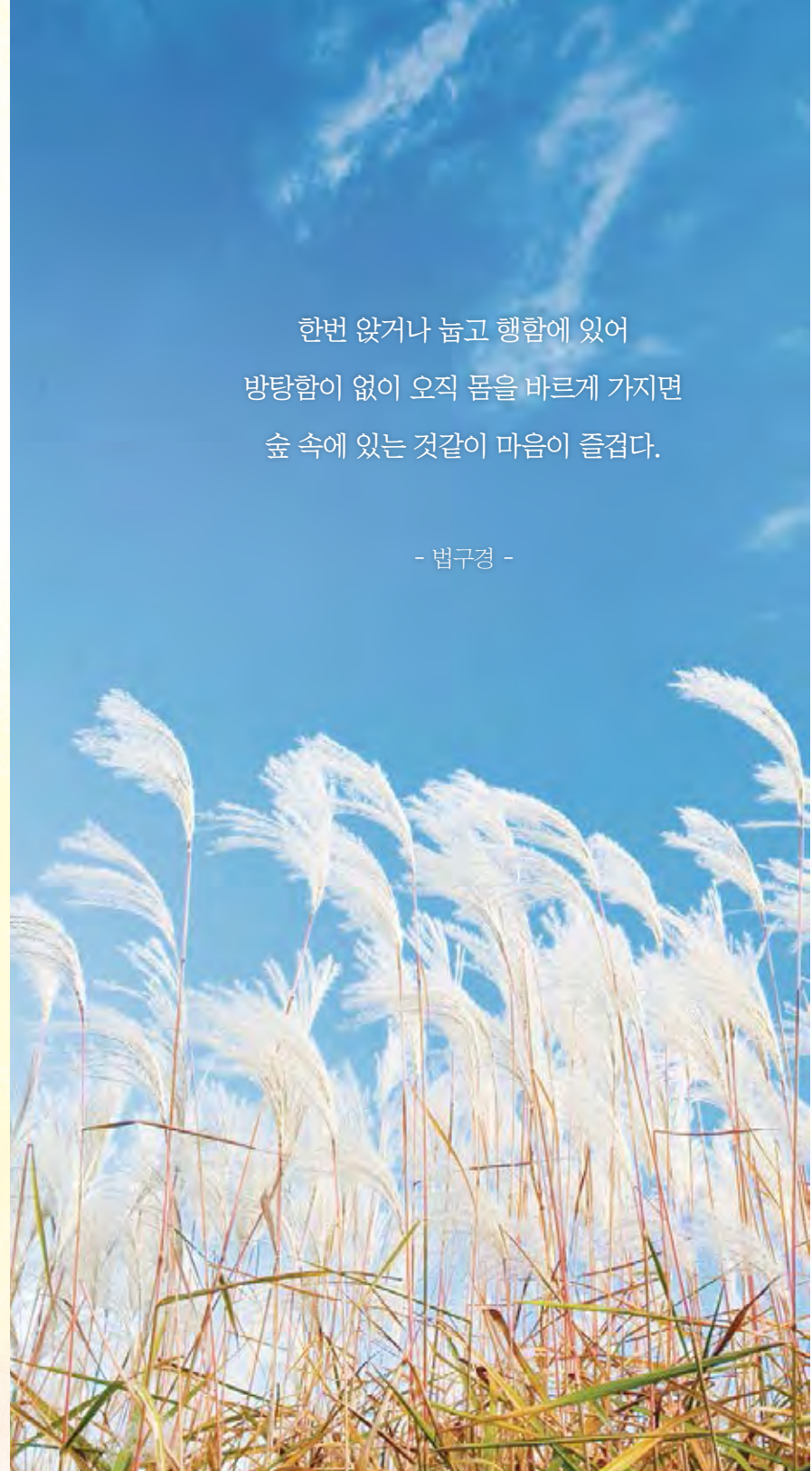
수레 뒤를 한 여학생이 밀고 있다. 예쁜 여학생이다.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와 애길 나누는가 보다. 가방을 메고 손에 책을 들었는데, 아마도 학교에 가려다 할머니의 수레를 만난 것 같았다. 어수선하고 복잡한 풍경 속에서 두 사람만 조명을 받은 듯 환하였다. 조수석에 두었던 휴대폰을 집어 찍으려는데 하필 그때 스캠전화가 올 것이 뭉툰.

할머니의 수레와 언제까지나 수레를 밀 것 같은 여학생이 바빠 차 앞을 지나갔다. IC로 가는 도로여서 오가는 차들이 많다. 신호에 걸려 모두 차에서 할머니와 여학생을 쳐다본다. 착한 마음에 용기도 있어야 한다. 남학생도 아니고 가냘픈 여학생일까. 그 광경을 못 찍어 못내 아쉬웠다.

연민, 도움. 이런 것은 알파고도 배울 수 없다. 요즘 '착한 것'은 '매력 없다'와 동격으로 들리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을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공기가 깨끗한 연초록 숲길로 접어든 듯 상큼하고 맑은 느낌! ♫

한번 앉거나 눕고 행함에 있어
방탕함이 없이 오직 몸을 바르게 가지면
숲 속에 있는 것같이 마음이 즐겁다.

- 범구경 -



모든 종교는 숭고하다(1)

- 이슬람 수피 성지 방문기

김단비

불교총지종 통리원 교무



▲ 수피 성지 니자무딘 울리야 성지

불교, 기독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이자 전 세계적으로 16억 정도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회적 문화 공동체 이슬람.

많은 종교가 그러하듯 이슬람교 내에도 많은 종파가 존재한다. 그 중 신비주의 학파인 수피즘(Sufism)에 관심이 있던 나는 인도 방문을 계기로 수도 델리에 위치한 이슬람 수피 성지에 방문하기로 했다. 인도아 대륙에서 가장 유명한 수피주의 한 명인 니자무딘 울리야가 잠들어 있는 사원으로.

델리 시가지에서 이슬람 사원까지 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지만 대다수가 힌두교인인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되었다. 이슬람교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힌두교인의 렉사를 잡아타게 된 것이다.

목적지를 듣고 몇 초간 고민하던 표정을 짓던 힌두교인 기사는 나에게 그 동네(이슬람교도 최대 주거지)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는지,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끊임 없이 이야기하였다.

출발 전까지 나를 종용하던 힌두교인 기사는 가는 내내 나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고 심지어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는 순간까지 다시 생각해 보라며 나의 뒤에서 외치고 있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수피 성지 거리에 도착한 나는 비로소 홀가분한 마음으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곳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평온하고 종교적인 기운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거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해 보이는 이슬람교도들로 가득 했고 곳곳에 장미향이 풍겨나고 있었다. 또한, 모스크(이슬람 사원) 주변에는 길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름다운 천과 장미 향수, 장미 꽃잎이 담긴 쟁반들로 가득했다. “장미꽃을 사세요! 성자님께 드릴 싱싱한 장미꽃과 예쁜 천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상인들도 함께.

종교적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평화와 시장의 활기가 느껴졌다. 동시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곳에 존재하여서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무슬림들을 그 순간 다 만난 것 같았다.



▲ 신을 향한 노래 수피승, 카왈리

그러나 내가 이곳을 방문한 진짜 목적은 수피 사원을 방문해 그의 가르침을 찾는 것과 수피들의 전통음악인 ‘카왈리’를 직접 듣는 것이었다. 저녁 7시에 공연이 시작된다고 하여 근처 이슬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 6시 쯤 사원에 입장하였다. 신발을 벗고 사원 안에 들어가니 인도 각지에서 모인 듯한 방문객들이 각각 참배도 하고 경전을 읽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도 참배를 위해 수피 성자가 모셔져 있다는 중앙 건물에 입장하려 하였으나 안내인이 여자는 건물 안쪽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여성들이 중앙 건물 외벽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약간의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법. 별 수 없이 나도 다른 여성 무슬림들처럼 외벽에 송송 뚫린 별모양의 구멍을 통해 안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사원 안을 둘러보고 있던 나에게 한 사원 봉사자가 다가왔다. 그는 나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사원은 처음인지 등의 간단한 것들을 묻고 사라졌다. 문득 낮에 만난 힌두교인 릅샤 기사의 외침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돈을 요구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요구

하려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 다시 나타난 그 봉사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여행객을 배려한 노란색 인도식 간식 한 봉지만을 건네주고 사라졌다. 그 간식 한 봉지에 머리를 한 방 맞은 듯 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힌두교 릅샤 기사의 배타성과 편견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을 취했던 내가 내 안에 담겨 있는 편견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여행자라는 특수성이 가진 경계심도 한 몫 했겠지만 어찌되었건 나에게서는 반성과 자각의 계기가 된 일이었다.

이윽고 저녁 7시가 되자 수피 전통 음악인 카왈리를 부르는 악사들이 노래를 시작했고 나는 매우 가까워서 그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악사들은 그 흔한 마이크 하나 없이 작은 악기만을 앞에 둔 채 노래를 불렀는데 진정한 생^수 음악이었다. 인도와 이슬람풍이 함께 들어있는 곡조는 저절로 듣는 이를 박수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를 듣던 나는 순수하게 이 순간이 즐거웠고, 친절한 무슬림들이 좋았으며 이렇게 델리의 저녁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이슬람, 종교, 수피즘, 성자 니자무딘 울리야 같은 단어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노래가 끝나고 사원을 나오면서 알 수 있었다. 사원 안에 수피 성자 니자무딘 울리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거리 자체가 그였고 그의 울림, 그의 진동은 여전히 죽지 않고 그 거리에 향기롭게 울려 퍼지고 있음을. 그 모든 것이 그를 만난 것과 똑같았다. 애써 사원에서 거리에서 그를 찾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모두 똑같았다. 🙏

번뇌 있는 부처가 중생이요,
번뇌 없는 중생이 부처다.

범수연
화음사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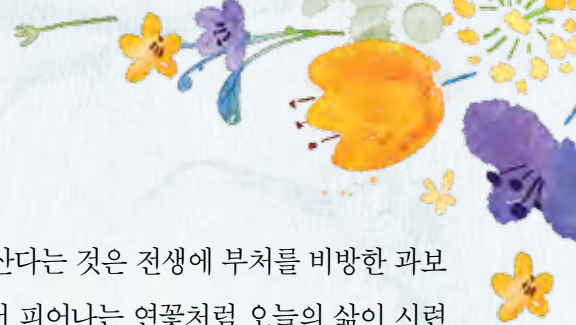


비방 誹謗

(종조법설집 p.130)

- ① 현세를 정화하고 행복케 하는 정통밀교를 비방하면 일체 선신이 미워하며 그 사람은 현세부터 곧 질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으며 자손은 불량하고 빈천하여져서 항상 고통가운데 살게 되느니라.
- ② 삼보를 공경하고 비방하지 말지니 부처를 비방하면 재물이 없어지고 교법을 비방하면 자기가 불량하고 스승을 비방하면 자손이 불량하다.

이따금 교도들이 말하길 “우리 불공은, 하다가 안하면 법문이 크게 온다.”라고 합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어서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 보려고 선택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인연이 닿지 않아서 일까요?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건진다 하셨듯이, 퇴전하는 상황을 보면 대체로 ‘법’ 자체를 비방하면서 그만두게 됩니다. 때문에 그러한 교도의 앞날을 조금만 내다 봐도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위의 경에 언급된 대로 말입니다. 한 포기의 식물도 좋은 말이나 음악을 들려주면 성장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모든 중생들의 삶에 지침이 되는 부처님 법을 비방한 과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 자신이 제도 되고 가족이,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한가지 법으로 수행하며 살아간다면 만다라 세상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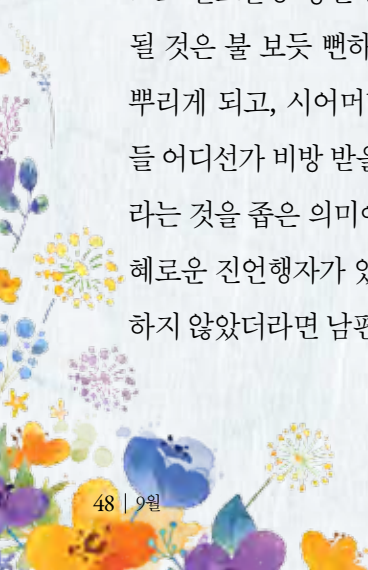


불공기간의 일상사를 현장학습으로 삼아 매달 하는 월초불공이 지나면서 나쁜 습관 하나씩은 고쳐져야 되는데... 어렵긴 정말 어렵습니다. 입교하며 경을 보는 순간 ‘이 경은 나를 위한 경전이다’는 생각이 들어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다보니 스스로도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감사하며 행복해 하는 어느 진언행자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월초불공 기간 중 어느 날 아침, 집안일을 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각자님께 “여보, 빨래 좀 넣어줘.” 라고 부탁했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 건조대를 보니 각자님이 당신의 옷만 쪽쪽 골라서 걸어놓았지 뭐예요. 순간 뇌리를 스치는 법문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살아온 본인의 모습을 어찌면 이리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싶은... 각자님의 지금 모습이 바로 자신의 ‘업경^{業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우습기도, 귀엽기도 하여 한바탕 크게 웃었더니 각자님이 겸연쩍어하며 “나머지도 널 거야.” 하며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화를 내며 비방했더라면 당장은 부부싸움이 났을 것이고, 다음으로 월초불공 정진 중에 일어난 일이니 한 달 내내 진심중^{真心中}에 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남편을 비방하였으므로 머리 아플 씨앗하나 뿌리게 되고, 시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비방했으니 본인의 귀한 자녀들 어디선가 비방 받을 씨앗하나 심는 계기가 될 뻔했지요. ‘인^因’과 ‘과^果’라는 것을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세분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진언행자가 있는 가정의 화목은 당연합니다. 만약 마음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을 비방하기 바빴겠지요.

이생에서 유난히 빈곤하게 산다는 것은 전생에 부처를 비방한 과보로 볼 수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오늘의 삶이 시련과 고통에 둘러싸여 척박한 삶을 살지라도 전생에 비방한 것을 참회하며 부처님(남편, 아내, 자녀...)을 믿고 공경하며 살아가노라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인과의 법칙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언행이나 생활습관이 남들에 비해 불량하다면 부처님 법을 비방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스스로 계행을 지키며 갈고 닦아 진실한 불자답게 살고자 수행하면 즉신성불! “번뇌 있는 부처가 중생이요, 번뇌 없는 중생이 부처다. 그러므로 당신이 바로 부처님이다”이 보다 위대한 인류사의 진리는 없을 겁니다.

우리 종단의 스승님들 또한 오직 교도들의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위해 용맹정진하십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 볼 때도 보는 시각에 따라 엄청난 차이점이 있듯이 승속의 관계에서도 내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에만 집착하여 승을 비방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이 비방한 만큼의 ‘인’이 ‘과’가 되어 때로는 자신이, 때로는 가족이 받게 되는 진리를 굳게 믿고 불자답게 실천하여 날마다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합장 합니다. 🙏



화양연화 花樣年華

- 김사인

모든 좋은 날들은 흘러가는 것 잃어버린 주홍 머리핀처럼
물러서는 저녁 바다처럼, 좋은 날들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새나가지 덧없다는 말처럼 덧없이, 속절없다는 말처럼 속절없이.
수염은 희끗해지고 짓궂은 시간은 눈가에 내려앉아 잡아당기지.
어느덧 모든 유리창엔 먼지가 앉지 흐릿해지지.
어디서 끈을 놓친 것일까.
아무도 우리를 맞당겨주지 않지 어느날부터.
누구도 빛나는 눈으로 바라봐주지 않지.

눈멀고 귀먹은 시간이 곧 오리니
겨울 숲처럼 더는 아무것도 애달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리니

잘 가렴 눈물겨운 날들아.
작은 우산 속 어깨를 견고 꽃장화 탕탕 물장난 치며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
철모르는 오누인 듯 살아가거라.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거라.

- 시집 『어린 당나귀 곁에서』 수록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화양연화 花樣年華

누구나 세상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삶에 맞는 꽃을 피우며
열매 또한 맺었으리라.

때로는 시리고, 때로는 간절하기도 했던 시간들이 저마다의 인생 곳
곳에 간직되어 어찌면 그 시간들로 인해 지금의 삶을 좀 더 깊고 실하
게 꾸릴 수 있는 거름이 되어준 경험도 있을 것이다.

하나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고, 이제는 한창의 꽃 같던 모습들
을 추억하는 시간만 쓸쓸하게 마주 하고 있는 이도 더러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설레는 것, 지금부
터의 화양연화를 위해 더 가슴 뛰는 시간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펄펄 끓고 있는 저 뜨겁고 강렬한 태양처럼... ▲

커피품종

이선희
프리랜서



커피는 쌍떡잎식물로 꼭두서니(Rubiaceae)과에 속한다. 많은 커피의 종에서 아라비카-arabicas, 로부스타-robustas, 리베리카-libericas를 삼대 원종이라고 하며 현재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두 종만 주로 재배 되고 있다.

아라비카는 주로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미와 남미에서 생산되고, 로부스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남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브라질은 가장 큰 아라비카 생산지이자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로부스타 생산지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교역될 때에는 편의상 콜롬비아 커피를 중심으로 한 마일드mild, 브라질 커피를 중심으로 한 자연건조식 아라비카-natural arabica,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로부스타-robusta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아라비카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인 아라비카는 잎의 모양과 색깔, 꽃 등에서 로부스타와 미세한 차이를 나타낸다. 아라비카는 주로 고지대에서 재배된다.

아라비카는 단맛, 신맛, 감칠맛, 그리고 향기가 뛰어나다. 성장속도는 느리지만 향미가 풍부하고 카페인 함유량도 로부스타에 비해 적다. 모양은 로부스타에 비해 평평하고 길이가 길며 가운데 새겨진 고랑이 굽어 있다. 색은 좀 더 진한 녹색이며 때때로 푸른 색조를 띄기도 한다.



▼로부스타

아라비카에 비해 강인한 종자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열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잎과 나무의 크기가 아라비카 보다 크지만, 열매는 리베리카나 아라비카 보다 작다. 대개 로부스타는 쓴맛이 강하고 향기도 아라비카종에 비해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커피와 배합하거나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모양은 둥근형으로, 가운데 새겨진 고랑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 내추럴 생두의 색은 황갈색을 띠고 수세 처리된 생두는 연두색을 띤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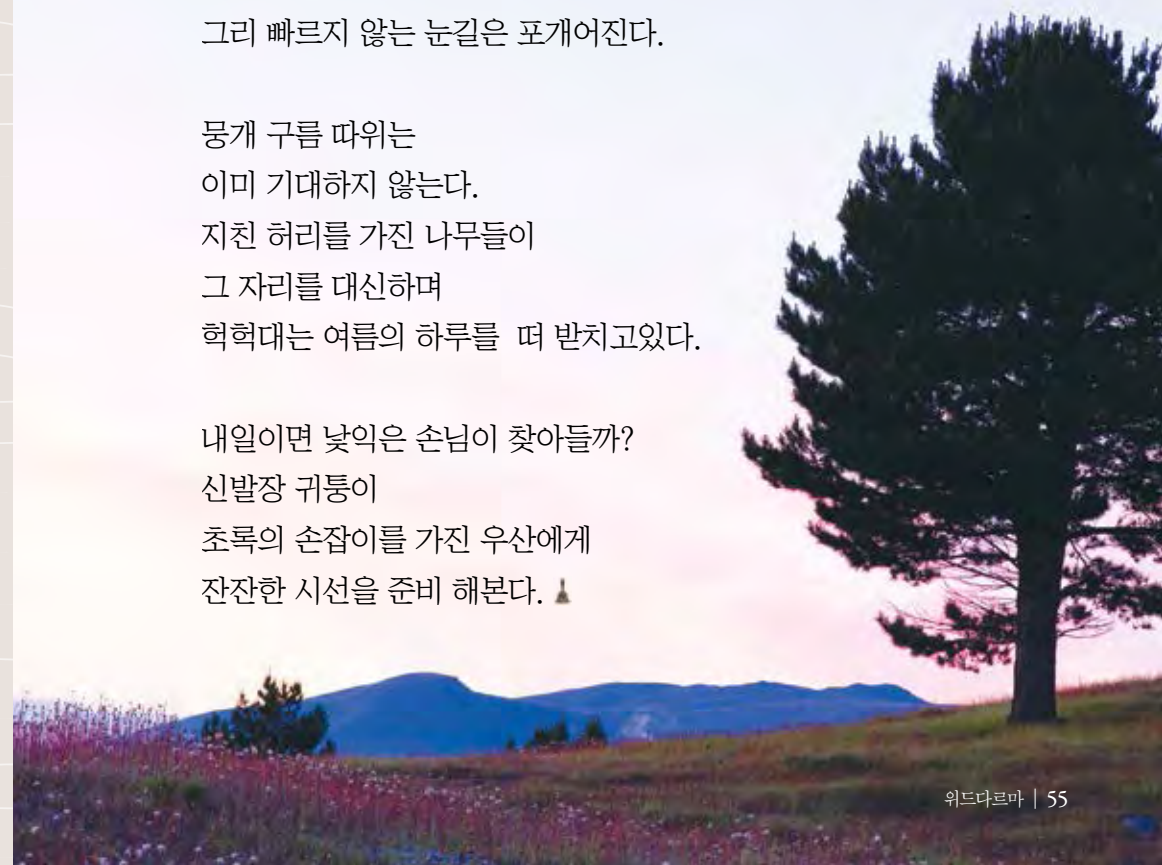
구분	아라비카	로부스타
원산지	에티오피아	콩고
최적 기후	온화한 기후	따뜻하고 습한 기후
번식	자가수분	타가수분
고도(m)	600~2,200m	0~800m
적정 온도(°C)	15~24°C	24~30°C
적정 강수량(mm/년)	1,500~2,000mm	2,000~3,000mm
병충해, 서리	약함	비교적 강함
잎 모양	작고 광택 있는 타원형	크고 폭이 넓음
체리 성숙기간	6~9개월	9~11개월
원두 모양	타원형, 납작, 깊은 홈	타원형에서 원형
꽃의 크기	작음	큼
카페인 함량(%)	평균 1.4%	평균 2.2%
특성	향미가 우수, 신맛이 좋음	향미가 약함, 쓴맛이 강함
주요 생산국가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생산	60%	40%
소비	원두커피용	인스턴트 커피용

턱까지 숨이 차올라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작은 바람에
고개만 겨우 흔드는것에
존재를 알리는 나무들의 움직임

그사이 사이로 날아드는
새 들의 본능적인 움직임에
그리 빠르지 않는 눈길은 포개어진다.

뭉개 구름 따위는
이미 기대하지 않는다.
지친 허리를 가진 나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헉헉대는 여름의 하루를 떠 받치고있다.

내일이면 낮익은 손님이 찾아들까?
신발장 귀퉁이
초록의 손잡이를 가진 우산에게
잔잔한 시선을 준비 해본다. 🌲



왕비는 왜 자꾸 거울을 보았을까

박현희
독산고 사회교사



아름다움은 왕비의 힘이다

백설공주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일까? 숲 속 난쟁이들을 제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백설공주를 제치고, 공주를 살려 낸 멋진 왕자님의 키스를 제치고, 내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왕비의 거울이었다. 나는 그 거울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무엇을 물어보든 항상 정확한 답을 주는 왕비의 요술거울. 내게도 그런 거울 하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집 안 곳곳의 거울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도 물어보았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때로는 소리 내어.

왕비도 그랬을 것이다. 틈이 날 때마다, 조용한 순간이 올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왕비의 요술 거울은 대답했겠지. “왕비님,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런데 이상도 하지. 왜 왕비는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거울에게 물었을까? 그것도 늘 똑같은 질문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늘 같은 대답만 하는데. “왕비님,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하고, 적어도 “백설공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라는 대답으로 왕비를 불행에 빠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왕비가 놓인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거울의 대답이 왕비에게 주는 위안의 힘이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할 수 있다. 왕이 잘생겼다는 얘기는 동화책에서 눈 비비고 뒤져도 찾을 수 없고, 그들의 2세인 백설공주는 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성이 되었으니 결국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은 어머니 왕비 덕분일 것이다. 왕비는 왕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다. 아름다운 전 왕비는 백설공주를 낳은 뒤 죽었고, 요술 거울을 가진 왕비는 그 뒤를 이어 왕비 자리를 차지했다. 왕비라는 지위는 권세가 함께하는 자리이지만 참으로 덧없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 지위에 따르는 모든 좋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왕비가 아니라 왕이다. 왕의 사랑과 관심이 유지되는 동안,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동안, 딱 그동안만 왕비의 권세도 유지된다.

두 번의 결혼에서 모두 절세 미녀를 아내로 얻은 왕의 행적에 미루어 추정해 보자면, 왕은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한다. 왕비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왕비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아름다움 덕분이고, 이 자리의 권세가 유지될 수 있는 날들도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딱 그날

까지라는 것을. 그러니 왕비는 요술 거울에게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지를, 왕비의 아름다움을 100퍼센트 긍정해 준 요술 거울의 대답은 왕비에게는 지위에 대한 보장인 셈이다. 그러니 거울에 매달리는 왕비를 탓하지 말지어다.

왕비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이해도 된다

어느 날 거울이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답을 한다.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왕비를 둘러싼 세상이 변한 것이다. 묻는 말에 대한 정직한 답이긴 하되, 그 답이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을 때 왕비는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아름다움으로 유지되던 왕비의 세상이 무너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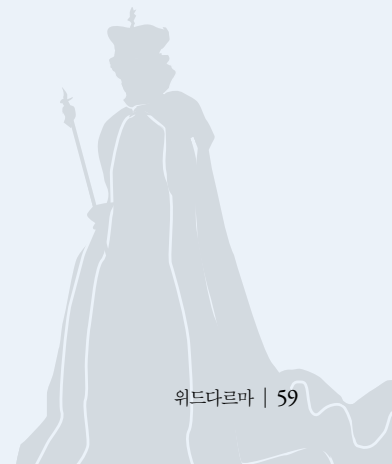
백설공주가 아무리 예뻐도 왕의 딸이니까 왕비가 될 수 없고 그러니 왕비의 라이벌이 될 수 없는데도 왕비가 왜 그토록 백설공주를 미워하는지,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남자들은 “하여간 여자들이란……” 하면서 비웃었지만 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것도 당연하다. 백설공주는 왕비의 세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물론 공주로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바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랬다. 백설공주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라는 왕비의 자부심을 망쳤으며, 늘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줌으로써 왕비를 행복하게 해주던 요술 거울과의 관계를 망쳤다. 요술 거울이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왕비에게 한 것은 왕비가 싫어져서가 아니니까 잘못은 왕비보다 더 예쁜 백설공주에게 있는 것이다. 왜 감히 나보다 예쁜거야! 과연 죽을 만하지 않은가.

왕비에게도 잘못은 있다. 왜 거울에게만 관계의 모든 것을 걸었을까? 거울에게 시시때때로 말을 걸 듯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 수는 없었을까? 거울 앞에서 마음을 터놓듯 주변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갈 수는 없었을까? 거울의 말을 100퍼센트 믿어 주었듯 주변 사람들의 말도 전폭적으로 신뢰해 줄 수는 없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거울과는 달리 사람들은 왕비가 말을 걸어도 외면할 수 있고, 마음을 열었을 때 뒤에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다가갔어도 이용만 당할 수도 있고, 100퍼센트 믿어 준 결과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요술 거울과 사귀는 것은 사람과 사귀는 것보다 안전하니까. 안전을 택해도 행복할 수 있는데 구태여 더 행복해지겠다고 모험을 감행할 필요는 없다고 왕비는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거울은 거울일 뿐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무엇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온기와 애정이 담긴 대화를 대신할 수는 없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겪는 모험을 피해 안전한 거울의 방으로 숨은 왕비에게 파멸이 닥친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기’가 필요하다.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연꽃의 전설

덕현

법천사 전수

아름다운
당신

사막 근처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처녀의 집에는 일 년 내내 맑은 물이 솟아나는 연못이 있었는데, 처녀는 사막을 건너오는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항상 연못의 물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사막 일대에서는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아름다운 처녀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어느 날 남루한 차림새에다 몹시 지쳐 보이는 젊은이가 찾아왔다. 처녀는 젊은이에게 시원한 물을 대접하였다. 젊은이는 물을 달게 마시고 보답으로 바가지에 술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한번 술을 담았던 바가지는 이후에 은은한 향기를 풍기게 되었다. 아름다운 아가씨, 차고 깨끗한 물, 향기로운 바가지가 3박자를 이루어 처녀의 칭송은 더욱더 높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의 왕자가 직접 행차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관리는 오히려 처녀에게 누명을 씌워서 처녀를 옥에 가두고 자신의 딸을 아름답게 치장하여 연못에 앉게 하고 왕자님을 기다리게 하였다. 연못에 앉은 관리의 딸은 물을 마시러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냈다. 처녀에게 술을 주었던 젊은이도 찾아왔지만 마찬가지로 욕을 들으며 쫓겨났다.

마침내 왕자가 마을에 도착하였고, 관리의 딸은 황금바가지에 물을 담아 왕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물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았고, 왕자는 물바가지를 받기를 거부하였다. 당황한 관리와 그 딸은 감옥으로 달려가 처녀에게서 바가지를 빼앗아 왔다. 그리고 후환이 두려워 부하들에게 아가씨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관리는 빼앗아 온 바가지에 다시 물을 떠서 왕자에게 바쳤고, 그 물에서는 향기가 났다. 물을 받아 마신 왕자는 바가지의 진짜 주인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미 아가씨는 관리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한 뒤였다. 사실 왕자는 바가지가 관리의 딸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가 바로 처녀에게 술을 주었던 남루한 젊은이였기 때문이다. 왕자는 그 자리에서 관리를 처벌하였다.

처녀가 죽은 뒤, 연못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혼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꽃은 아름다웠지만 향기가 나지 않았는데 마치 그 모습이 향기 나는 바가지를 빼앗긴 아가씨처럼 애처로웠다. 그 꽃이 바로 연꽃이라고 한다.

7월에 꽃을 피워 가을의 문턱 9월까지 이어지는 연꽃은 지금이 한창입니다. 사막을 건너느라 지친 나그네들에게 물 한잔을 건넸던 처녀처럼 은은한 연꽃의 자태는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작은 휴식을 줍니다.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의 꽃말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청정’, ‘신성’, ‘순결’ 등이 있습니다.

연꽃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뜻은 유연불삽(柔軟不滯)입니다. 연꽃의 줄기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충격에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이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예전에 비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은 더 다양해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변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물론, 융통성 있고 유연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미덕이지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라는 급격한 조류에서 우리는 연꽃처럼 자신의 본 모습, 소신 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연꽃의 줄기는 연하고 부드러워 강한 사람에게는 잘 꺾이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남의 입장을 이해하여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겐 강한 이중성을 지닐 때가 많습니다.

부드럽지만 부러지지 않는 연꽃을 다시 생각해봅시다. ▲



당신의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경문지
천안두정초등학교 교사



“아니,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나?”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동료선생님들과 하는 말인 것 같다. 이해해야 하지만, 가끔 이해되지 않는 아이들의 행동들. 하지만 늘 답은 같다.

‘아이잖아. 우리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어야 그들이 애써 이해가 되고, 선생님으로서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 그러는 중에는 늘 그렇듯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나를 떠올린다.

바로 이 때 자연스레 한 얼굴이 떠오른다. 나의 어린 시절, 4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시다.

2001년, 어느 조그마한 동네의 작은 학교에는 문제 많고 탈도 많은 소년, 소녀들이 있었다. ‘4학년 1반’. 참 유명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짜놓은 것 마냥 학교의 문제아라는 아이들은 죄다 모여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 여러모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반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때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려지던 풍경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아이들 틈에 앉아 칠판을 바라보던 어린 내가 아니라, 칠판을 등지고 서서 수많은 눈이 반짝이는 교실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강주석 선생님’. 그분과 함께했던 교실을 기억해 본다.

덩치가 산만한 남학생 몇 명은 몸이 좋지 않아 소외되어있던 여학생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여학생들끼리는 어찌나 기가 센지 매일 말다툼을 하면서, 그 와중에 막상 수업시간에는 쥐죽은 듯 조용, 그들을 감싸는 공기 중에 활기란 찾아볼 수가 없다.

‘아, 얼마나 암울하셨을까.’ ‘좀 더 많이, 큰소리로 발표할 걸’ ‘결에 있으면서 사소한 일들은 먼저 나서서 도와드릴 걸’ 지금에서야 어쭙잡은 후회를 해본다.

아무래도 내가 아이들로부터 힘들 때 선생님을 떠올려서 일까. 나의 하늘같은 선생님이자 선배님에게서 제자, 후배로서 배울 점을 찾아본다. 그 중 여전히 마음을 아리게 하는 선생님의 한 행동이 떠오른다.

4학년이었던 나에게는 정말이지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궁금증이 있었다.

바로 1반의 눈물의 비밀이다! 학교는 물론 동네까지도 떠들썩하게 했던 덩치 큰 말쑥꾸러기들이 참 신기하게도 담임선생님의 부름에 교탁에 가서 사랑의 매를 맞고 오면 말없이 닭똥 같은 눈물만 똑똑 흘렸다. 반항을 했으면 했을 아이들인데, 그 때만큼은 어찌나 순한 양이 되는지. 그리고 자리에 들어와서는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마냥 한동안 얌전히 생활했다.

‘선생님의 매가 너무 아픈가?’ 그래도 나는 커져만 가는 호기심보다 매 맞는 것이 훨씬 무서운 아이였나 보다. 한번 맞아보면 될 것을 딱히 혼날 행동을 하지는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궁금증.

그러던 어느 날, 학년이 끝나갈 때 쯤 내가 속한 모둠 전체가 말쑥을 부려 선생님이 계신 책상으로 불러 나간 적이 있다. “ 짹!... 짹!...” 사랑의 매로 아이들의 손이 벌게질 무렵, 뒤에서 멀찌감치 줄 서있던 내 차례가 다가왔다. 두근두근. 그리고 얼마 후 붉어지는 내 눈시울. 우리 반 아이들의 눈물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선생님의 매가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너무 슬펐고, 눈물이 줄줄 났다. 선생님께서 매 앞에 파르르 떨고 있는 내 손바닥 위에 당신의 커다란 왼쪽 손바닥을 올리시는 것이었다. 그리고서 짹, 짹. 선생님이 대신 아프셨다. 10명이 어도 대신 아프셨다. 그리고 지켜보는 아픔에 눈물만 났다. 멍했다.

‘내가 선생님을 맞게 했구나.’ 그 생각에 선생님의 꾸중 한 마디 없이 나와 친구들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혼내지 않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던 선생님의 배려심에 보통의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문제아라는 다른 이름 속에 비난 받기 일쑤였던 아이들의 뾰족한 허물이 벗겨져온 것이었다.

학생으로서의 내 시선에서는 선생님이라는 분들은 호랑이처럼 무서운 선생님, 아니면 엄마처럼 따뜻한 선생님이로 보였던 것 같다. 물론 무관심한 선생님도 계셨지만. 그리고 나에게는 그때부터 아마도 평생 간직할 또 다른 한 부류의 선생님이 마음속에 자리한다.

백 마디의 말보다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더 큰 가르침을 주시던 ‘강주석 선생님’.

나는 ‘경문지 선생님’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걱정과 설렘에 한숨 섞인 웃음을 지어본다. ▲



우아한 여배우

정리: 이선희



얼굴 주름을 얻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1960년대 영화 '추억의 장미'의 주연이었던

이탈리아 영화배우 안나 마냐니 Anna Magnani가 늙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진사에게

조용히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진사 양반, 절대 내 주름살을 수정하지 마세요.”

사진사가 그 이유를 묻자, 안나 마냐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얻는 데 평생이 걸렸거든요.”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만난 꿈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나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름이든, 상처든, 흰머리든 그 모든 것에 자신이 치열하게 꿈꿔온 모든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운동을 하지 않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하세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사’라는 사실을...

비가 오지 않는 곳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왜 무지개가 뜨지 않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무지개를 얻기 위해선 먼저 비를 맞고 견디는 혹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없는 눈엔 결코 무지개가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꿈만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쓰러져도 쓰러진게 아닙니다. ♣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 하워드 가드너-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우고 감추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당연시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은 착한 마음씨입니다. 그것은 깊이가 있는 연륜^{年輪}입니다. 외연과 내면을 함께 가꾸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연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멋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오드리 헵번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젊은 시절 ‘로마의 휴일’이 아니라 주름진 얼굴이지만,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노년의 그녀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지극한 도道

범일

벽룡사 주교



지극한 도道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이 옳다 그르다 따지지만 않으면 된다.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하는

마음만 내지 않으면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리라.

- 승찬 「신심명」



나무꾼 2명이 내기를 했다.

한명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했고

또 한명은 50분에 10분간 휴식을 하면서 나무를 했다.

해 질 녘 하루 동안 한 나무를 보니

쉬면서 한 나무꾼이, 쉬지 않고 나무만 한 나무꾼 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한 것이 아닌가?

“아니, 자네는 쉬어가면서 나무를 했는데 어찌하여

쉬지도 않고 나무만 한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는가?

혹 그 비결이 무엇인가?”

“비결 말인가? 그런 것은 없다네.

다만 나는 쉬는 시간 10분 동안

무더진 도끼의 날을 갈아 세웠을 뿐이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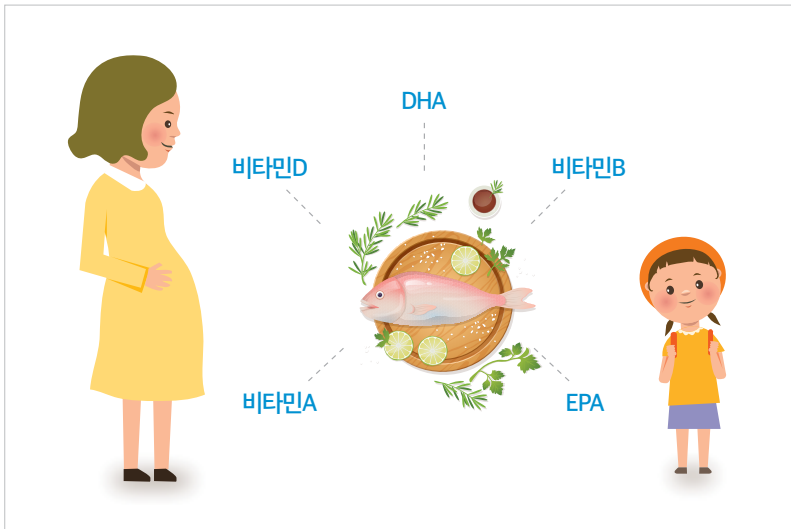
* 긴장하거나 몰입하는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

🐟 생선, 몸에 좋습니다

생선은 단백질의 우수한 급원으로 DHA(도코사헥사엔산), EPA(에이코사펜타엔산) 등과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 순환 개선효과와 어린이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B군 및 A와 D군, 셀레늄 등 무기질 함량이 높아 어린이 성장발달에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이러한 영양성을 고려하여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 등 10세 이하 어린이에게 생선섭취를 권장합니다.



🐟 다랑어류, 새치류, 상어류는 일반어류에 비하여 메틸수은 함량이 높습니다

생선에 포함된 메틸수은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다랑어류에 평균 0.21 $\mu\text{g/g}$, 새치류에 평균 0.52 $\mu\text{g/g}$, 상어류에 평균 0.27 $\mu\text{g/g}$ 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명태, 조기 등의 일반어류에는 평균 0.04 $\mu\text{g/g}$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틸수은은 해양생물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수명이 길고 주로 심해에서 서식하는 “대형어류”(다랑어, 황새치, 상어)에서 “일반어류”(고등어, 갈치 등) 보다 높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다랑어가 주원료인 참치통조림에는 메틸수은이 평균 0.04 $\mu\text{g/g}$ 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 함량과 같이 낮은 수준입니다.

🐟 생선은 몸에 좋지만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 등 10세 이하 어린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기간 중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과도한 메틸수은으로 인해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임여성, 임신·수유 여성, 유아 등 10세 이하 어린이는 다랑어·새치류와 상어류에 해당하는 생선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단백 식품인 생선은 어린이의 성장에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유아 등 10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일반어류” 중에서 생선의 종류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랑어, 새치류 및 상어류”의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생선의 섭취요령

생선 섭취는 생선 종류, 연령에 따른 섭취 권고량과 1회 제공량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회 제공되는 생선은 60g입니다(2015 한국 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 손바닥 크기와 제공량을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고등어와 갈치는 한토막, 참치회 6조각 또는 연어초밥 10개를 섭취하는 분량입니다.

유아 등 10세 이하 어린이의 1회 제공량으로 성인보다 적은 1-2세는 15g, 3-6세는 30g, 7-10세는 45g을 권고합니다. 🍴



❖ 어류 분류표

분류	어류
일반어류	갈치, 고등어, 꽁치, 광어/넙치, 대구, 멸치, 명태, 민어, 병어, 우럭, 삼치, 송어, 전어, 조기 등
참치통조림	가다랑어
다랑어·새치류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백다랑어, 점다랑어, 황새치, 돛새치, 청새치, 녹새치, 백새치, 몽치다래, 물치다래
상어류 등	칠성장어, 얼룩상어, 악상어, 청상아리, 곱상어, 귀상어, 은상어, 청새리상어, 흑기흉상어, 다금바리, 붕평치, 먹장어, 은민대구 등

❖ 생선의 섭취 권고량

분류	섭취 권고량 (g/주)			
	임신·수유부	1-2세	3-6세	7-10세
일반어류 및 참치통조림	400g	100g	150g	250g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	100g	25g	40g	65g

※ 다랑어류 등의 경우 메틸수은의 실제 오염량은 100g당 0.03mg 수준이나 극단적인 오염(관리 기준 0.1mg)을 기준으로 함.
 ※ 참치통조림(가다랑어)은 참다랑어와 같은 다랑어류에 비해 메틸수은이 1/10수준으로 검출.

❖ 생선의 섭취 횟수

일반어류 및 참치 통조림	임신·수유부	1-2세	3-6세	7-10세
권고량(g/주)	400g	100g	150g	250g
1회 제공량(g/회)	60g	15g	30g	45g
횟수(회/주)	6회	6회	5회	5회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	임신·수유부	1-2세	3-6세	7-10세
권고량(g/주)	100g	25g	40g	65g
1회 제공량(g/회)	60g	15g	30g	45g
횟수(회/주)	1회	-*	1회	1회

*섭취 제한

복음

福 音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福 복 - 복

音 소리 - 음

단어에도 영토가 있다면 확실히 복음^{福音}이라는 낱말의 영역은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다. 불교 경전에서 특별히 복음이라는 어휘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 현겁^{賢劫}에 출현하는 천불^{千佛}을 소개한 불경인 현겁경^{賢劫經}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견고^{堅固}여래의 태어나는 땅은 복음^{福音}이란 성이니 그 부처님의 광명은 4천 리를 비추며, 범지 출신으로서 아버지 이름은 수왕^{樹王}이고, 시자는 수력^{首力}, 상수의 지혜 제자는 월영^{月英}, 신족 제자의 이름은 동광^{動光}이니라.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세간에 계실 때엔 사람의 수명이 1만 2천 세이고 경전을 설함에 따라 한 번 모임에 백천의 제자, 두 번 모임에 9만, 세 번 모임에 8만의 제자가 다 도증^{道證}을 얻으며, 바른 법이 2만 8천세를 존속하고 사리가 널리 시방에 유포되리라.” 여기서 복음은 성의 이름으로 복음에 대한 정확한 뜻을 유추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복^福과 음^音의 합성어로서 생각해 보면 그 뜻이 함의하는 바가 크다. 복은 ‘공덕’ ‘선’ ‘가치 있는 행위’ ‘법을 실행 함으로써 발생하는 좋은 과보^{果報}’의 내용을 갖고 있고, 음은 ‘음성’ ‘설법의 말’을 뜻한다. 한 가지 갈래로 생각해 보면 복음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의 실천으로 인해 중생이 받게 되는 좋은 과보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의 경전을 음미해 보면, 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이다.

신과 인간의 행복과 복지와 이익을 위해여,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여래이시며,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다

이 한 사람의 나타나심은 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다.

(양곳따라 니까야 1부 13:1-7)

계륵

鷄
肋

鷄 닭 - 계

肋 갈비 - 립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
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

《후한서^{後漢書}》<양수전^{楊脩傳}>에서 유래한 말이다. 위^魏나라 조조^{曹操}가 촉^蜀나라 유비^{劉備}와 한중^{漢中}이라는 지역을 놓고 싸울 때의 일이다. 한중은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전략 요충지로서, 조조와 유비 중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익주^{益州}를 점령한 유비가 먼저 한중을 차지해서 세력권 안에 두고 있었다. 조조의 군대는 갈수록 유비 군대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 전진하기도 수비하기도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조조에게 닭국이 바쳐졌다. 조조는 먹자 하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의 갈비가 꼭 지금의 상황과

같다고 생각되었다. 그 때 부하가 야간 암호를 정하려고 찾아왔는데 조조가 무심코 ‘계륵’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부하들이 무슨 뜻인지 상의하였으나 아무도 영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부^{主簿}로 있던 양수^{楊修}만이 조조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놀라 그 까닭을 묻자 양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닭의 갈비뼈는 먹을 만한 데가 없다.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깝다. 공은 돌아가기로 결정하신 것이다^{夫鷄肋，食之則無所得，棄之則如可惜，公歸計決矣。}”

양수는 고기가 별로 없어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부위인 계륵과 마찬가지로 한중 지역이 버리기는 아깝지만 그렇다고 무리해서 지킬 만큼 대단한 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조의 의중을 파악한 것이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조조는 이튿날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이야기로부터 비롯되어, 특별히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또는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 계륵이라고 한다. 비슷한 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 있다. ▲

출처 : 두산백과와 네이버 지식백과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지난 호 독자 솜씨



| 마포구 이승희 님 |



| 은평구 배은혜 님 |



| 부산시 김은지 님 |



| 대전시 하은수 님 |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은하는 맑고 달빛도 풍요로운데
신선이 이 밤에 만나는 것 또한 좋으이
인간 세상의 수많은 까막까치들
해마다 오작교 만드느라 고생하오

銀河清淺月華饒 也喜神仙會此宵
多小人間烏與鵲 年年辛苦作仙橋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직은 여름의 끝자락으로 가을의 선선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절기상으로는 처서와 칠석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하늘도 한 뼀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여름을 추억하며 청량한 가을을 기다리게 됩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가 뚜렷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늠할 수 있는 계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을 선사합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기를 재촉하면서
칠석에 어울리는 한시를 읽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은하수와 달빛, 견우와 직녀의 만남, 오작교 등
전설 같은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기에
가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칠석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sunmac72@naver.com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덕원	김봉래	김양숙	남 익
무명시	밀공정	박말숙	배도련	법 공
법계월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송유나
수증원	이인성	이혜성	자선화	정재봉
정정심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효 강

-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6(2017)년 9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 책임 이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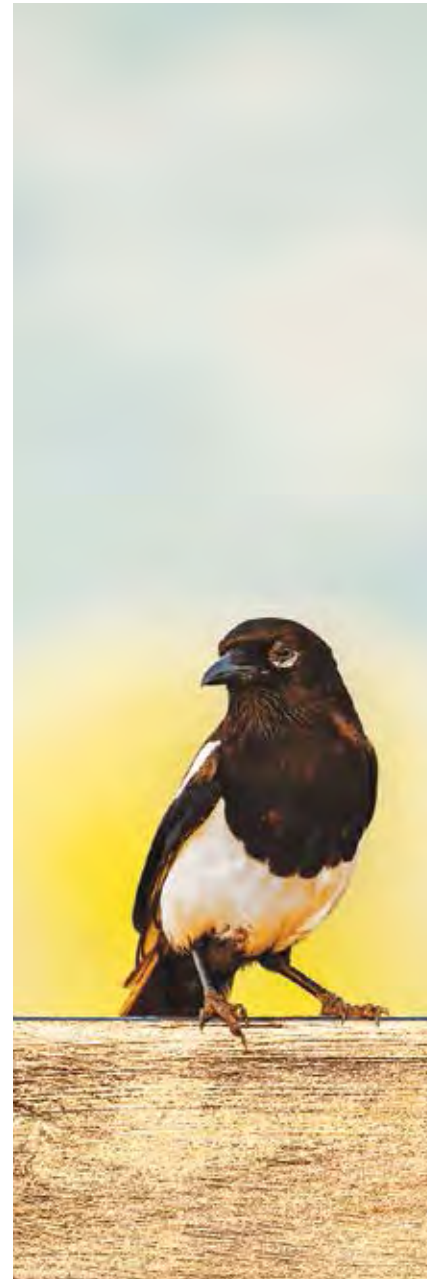
디자인 (주)디자인지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9월호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식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 환당 대종사 -